

제 공 일	2017. 6. 14(수)	
보 도 일	2017. 6. 14(수) 이후	
사진유무	이미지컷	
제공부서	기획조정연구부	
담당자 및 문의처	정봉희	(일반) 041-840-1123
	홍보팀장	(H. P)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도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충남소방본부, '충남정책지도 제13호' 공동 발간 “2015년 충남 화재 및 구급사고 출동 소요시간 분석”

지난 2015년도 충남지역 화재사고는 총3,031건으로 평균 출동 소요시간은 5.5분, 구급사고는 총86,164건으로 평균 출동 소요시간이 7.0분으로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충남소방본부와 공동으로 도내 화재, 구급사고의 출동 소요시간을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제13호'를 14일 발표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박정환 연구원과 연구진 등은 “이번 정책지도는 화재, 구급사고의 예상 출동 소요시간과 실제 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해 예상(화재 8분, 구급 10분)보다 출동이 지체되었던 사고지역을 가시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충남 화재사고의 출동 소요시간은 계룡시가 5.2분으로 가장 짧았고, 다음으로 부여군(5.3분), 논산시(5.4분) 순이었으며, 홍성군이 6.1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한 8분 내 도달한 화재사고는 총3,031건 중 2,508건으로 82.8%를 차지했다.

구급사고의 출동 소요시간은 논산시가 6.1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다음으로 홍성군(6.3분), 서천군(6.4분) 순이었고, 태안군이 9.6분으

로 가장 길었다. 그리고 10분 내 도달한 구급사고 건수는 총86,164건 중 70,684건으로 82.0%를 차지했다.

다만 연구진은 “전체 사고 중 예상보다 실제 출동 시간이 더 소요된 화재사고가 366건(8분 기준)으로 12.1%를, 구급사고는 9,559건(10분 기준)으로 11.1%를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충남연구원과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소방정책지도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충남소방본부, 충남정책지도 제13호 발간>

